

## 아베노믹스,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인가?

- 소위 춘투(春闘)라고 하는 노사협상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,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아베노믹스가 호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적이나 노동환경 개선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아베노믹스가 실체가 없는 ‘아베노매직(Abeno-magic)’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

### □ 유통 대기업이 주도한 노사협상

- 일본은 ‘13년 춘계 노사교섭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결정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
-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업계, 제조업, 유통 관련 기업 등이 보너스를 증액하였고, 일부 기업은 기본급(base up)도 인상

- 전자업계는 히타치제작소와 같이 보너스를 증액한 기업있는 반면,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업종과 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

\* 파나소닉은 경영개선을 위해 보너스 20%을 삭감

<주요업종의 춘계 노사협상 결과>

업 종	인상액(엔)	증감율(%)
식품	5,361	1.73
섬유	5,677	1.89
종이·펄프	4,893	1.58
자동차	6,839	2.06
제조업	6,204	1.96
비제조업	6,201	1.18
평 균	6,203	1.91

자료 : 닛케이신문(2013.4.6)

- 아베 총리는 지난 2월,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하여, 전 경제계로 확산되는 분위기

- 아베 총리는 임금 하락이 디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 증대를 위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솔선해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
- 아베 총리의 요청에 가장 먼저 반응한 기업은 산업경쟁회의에서 민간의원을 맡고 있는 유통업체 로손(LOWSON)으로 20~40대 정규직의 연봉 3% 인상을 발표
- 로손의 임금 인상 영향으로 가구판매업인 니토리, 유통기업인 세븐앤아이홀딩스 등이 기본급 인상을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 분위기는 자동차 등 타 업계로도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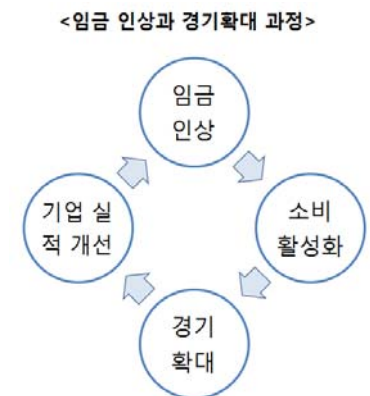
## □ 임금 인상만으로 경기 회복이 가능한지는 의문

- 엔저 효과로 수출기업과 특정 산업에서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지만, 아직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
- 엔저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을 필두로 대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로 연결되어, 중소기업에까지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
- 아베노믹스에 대해 야당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실체가 없는 ‘아베노매직(Abeno-magic)’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
- 임금 인상은 실적이 회복된 후 6개월~1년 뒤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 되어야만 다른 기업들로 임금 인상을 실시할 것임
- 이번 임금 인상은 아베 총리가 재계에 요청한 타이밍과 일치하여

마술처럼 보이지만, 임금 인상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

- 유통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, 춘계 노사협상 결과는 작년 임금 인상을 1.94%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금 인상이 쏠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는 상황

-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수석연구원은 “임금이 1% 인상되면 개인소비가 0.54% 증가되어 경기 확대가 기대되고 있지만, 임금 인상이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”고 주장



- 특히 보너스 증가율이 전년 대비 1.8%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기대하는 만큼의 소비 확산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
- 기업들은 산업계 전체의 약 30%를 차지하는 계약직 사원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, 유통업계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파트타임을 늘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도 과제가 되고 있음

## □ 시사점

- 임금 하락이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임금 인상이 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나 다양한 노동 유형이 필요
-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고,

기업의 투자를 자극하는 구조개혁도 중요함으로서 6월에 완성될 아베 정권의 ‘성장전략’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를 주목할 필요

- 일본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일본 국내 소비와 노동생산성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
- 노동생산성 향상이 구미에 비해 저조한 일본이 이번 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의 관심

-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에서 임금 협상이 타결

\* '12년 최저임금은 '07년 대비 약 50% 증가

<우리나라의 임금 인상 추이>

	임금 인상률 (%, 전년대비)	최저 임금 (원)	최저임금인상률 (% 전년대비)
2012	4.7	4,580	6.0
2011	5.1	4,320	5.1
2010	4.8	4,110	2.75
2009	1.7	4,000	6.1
2008	4.9	3,770	8.3
2007	4.8	3,100	12.3

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, e-지표나라

- 일본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개인소비가 확대되면, 대일 수출이나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비즈니스나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

#### <참고자료>

넷케이신문(2013.3.15, 4.6/8/11)